

# 대부도, 닥터헬기장보다 시급한 ‘119구급차 증차’ 요구 확산

넓은 면적·장거리 이송... “대부119안전센터, 구급차 최소 2대 필요”

대부도에서 닥터헬기장 설치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서 더 시급한 것은 ‘119구급차량 증차’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안산소방서 대부119안전센터에 배치된 구급차는 단 한 대. 대부도의 지리적 특성과 장거리 이송 환경을 고려하면 최소 두 대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부도는 인구는 많지 않지만 면적이 넓어 안산시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하지만 인근에 병·의원이 없어 응급환자 발생 시 시흥, 인천, 안산, 수원 등으로 장거리 이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문에 구급차 한 대가 출동해 환자를 후송하고 있을 때 뒤늦게 발생한 응급환자는 택시나 자가용으로 이동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과 응급처치를 주 임무로 하며, 녹색 띠의 일반 구급차와 붉은색 띠의 특수 구급차로 구분된다. 대부도에는 특수 구급차가 지는 필요 없지만 일반 구급차의 증차는 절실하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구급대원들은 경미한 환자의 경우 “혹시라도 더 중증 환자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자가용으로 이동해달라”고 안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한다.

대부119안전센터 관계자는 “닥터헬기장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우선은 당장 생명을 지키는 구급차가 한 대뿐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응급 상황에 대비하려면 최소한 한 대 이상의 구급차 증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10m가 사라졌다... 갈대습지 진입도로 침식, 드디어 해결의 길 열려”

안산 갈대습지 진입도로의 심각한 침식 문제가 환경전문가 최종인의 지속적인 제기 끝에 본격적인 해결 단계에 들어섰다. 진입도로 입구는 지난 10년간 약 10m가량 침식되었으며, 매년 1m씩 도로가 깎여 나가는 위험 상황이 이어져 왔다.

최종인 시화호지킴이·한국수달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시화조력발전소 가동 이후 외해의 물이 좁은 수문을 통과하며 강한 흐름이 생겨 호안을 침식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존 설명인 ‘장마철 강우로 인한 침식’이 사실과 다르다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 과정에서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이 행정적으로 힘을 보태면서 사안은 급물살을 탔다. 결국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시화호 상류 하천 사면 침식 및 홍수 영향 조사 용역’에 착수했고, 결과에 따라 100억 원 규모의 보강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침식은 단순한 환경 훼손을 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안산 갈대습지 진입도로와 화성시 새솔동 사이에 흐르고 있는 시화호 상류 호안의 모습으로 이 호안이 지속적으로 침식되고 있다는게 최종인 시화호지킴이의 지적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특히 진입도로에는 우수관로가 없어 비가 오면 빗물이 도로를 넘쳐 시화호로 곧바로 유입되며 상·하부에서 동시에 침식을 일으키는 ‘이중

침식’ 현상이 지속돼 왔다. 시민 환경운동가의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 이번 조치가 갈대습지의 생태 보전과 도로 안전을 확보하는 전

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인터뷰 2면〉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대부파크골프클럽 정기총회 운영 혼선·절차 논란 ‘폭발’

회칙 개정·클럽 선택 총회 준비 부족·불신만 키웠다

대부파크골프클럽의 2025년 정기총회가 4일 오후 4시 대부문화센터에서 열렸으나, 회칙 개정과 4개 클럽장 인준이라는 중대한 안건을 다루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총회 준비 부족과 무질서한 진행으로 회원들의 강한 불만을 샀다. 이번 총회는 회장직을 유지할 것인지 폐기하고 클럽장제로 전환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미 선출된 4개 클럽장이 있는 클럽 중에서 회원이 소속 클럽을 선택하는 절차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정작 총회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회의에서 가장 기본으로 해야 할 성원보고조차 생략됐고, 투표 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어 회원들은 투표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해매기 일쑤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투표 종료 후에도 뒤늦게 입장한 사람이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는 투표의 공정성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투표 결과, 96명의 투표자 중 89명이 클럽장제 지지, 7명이 회장직 유지 지지로 클럽장제가 선택됐다. 이후 진행된 각 클럽 선택 투표에서는 ▲

바다클럽 34명 ▲포도클럽 25명 ▲해솔클럽 23명 ▲황금클럽 1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회원 163명 중 67명이 불참한 만큼, 미참석자들을 둘러싼 ‘영입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클럽별 최소 인원 규정도 향후 혼란을 예고한다. 일정 기간 동안 25명 미만이면 클럽 해체 가능성이 있고, 60명을 넘기면 자동 분화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각 클럽의 회원 확보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한 이번에 선택된 4개 클럽 중 일부 클럽장은 안산시파크골프협회에서 인준이 보류될 가능성이 큰 인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클럽 회원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회 출전 제한, 협회 임원 자격 박탈, 대부파크골프장 오전 이용 제한 등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결국 일부 회원들이 “잘못된 클럽 선택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고 판단해, 인준 가능성이 높은 다른 클럽으로 대규모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회에서 최대 관심사였던 감사보고도 결국 생략됐다. 회의 순서에는 명시되어 있었으나, 총회 진행자가 이를 사실상 의도적으로 건너뛰며 회원들의 분노를 자초했다. 여기에 남은 회비 1,600여만 원의 처리 방안도 전혀 설명되지 않아 현 집행부는 마지막까지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현 회장단은 앞서 단체 조끼 구입 과정에서 회비 낭비 논란이 불거져

신뢰를 잃은 상태였고, 이번 총회에서도 남은 회비를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전에 안내된 입회비 5만 원은 회원별로 반환하고 월 회비는 별도 분배한다는 약속도 이날 설명되지 않아 향후 더 큰 갈등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회에서 선출된 바다클럽·해솔클럽 클럽장 역시 논란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대부도 24시 공정 감시단’ 단원 모집

우리 대부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안전,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하고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함께 지켜 나아갈 대부도저널 산하의

‘대부도 24시 공정감시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책임감 있고 활동적이며 성실한 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기다립니다.

대부도 24시 공정 감시단 문의 : 010-3199-4992

모집요강

### ○ 모집대상

- 책임감 있고 활동적이며 성실한 분
- 지역 안전, 환경 감시에 관심이 많은 분

### ○ 모집기간

-2025.11.20(목) ~ 마감 시 까지

### ○ 모집인원

- 00명

### ○ 지원방법

전화 [ 032-880-9994 ]  
또는 온라인 접수 [ dj250407@naver.com ]

활동 및 혜택

### ○ 활동

- 대부도 지역 24시간 모니터링
- 공공시설 및 도로, 하천, 공유지 및 사적 이익의 수단이 될 수 있는 행위를 감시
- 불법투기, 불법행위 감시 및 기록
- 언론·행정·사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바로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회원혜택

- 감시단 단원증 발부
- 대부도 24시 공정 감시단 자동차 스티커 발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면 대부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대부도. 우리가 지켜봅시다”



# 안산시, 한양대 ERICA 내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 본격 운영

안산시가 한양대 ERICA 캠퍼스에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안산시는 지난 1일 국내 대표 로봇 기업 ‘로보티즈’ 자회사인 로보티즈 AI의 실외 자율주행 배송로봇 ‘일개미’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10일 로보티즈와 ‘안산시 서비스로봇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 캠퍼스형 배달로봇 서비스 도입을 공식화한 바 있다.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배송로봇 ‘일개미’는 한양대ERICA 캠퍼스 지역에 총 10대가 투입된다. 로보티즈AI 측은 한양대ERICA 캠퍼스 일대 상가와 함께 배달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배달비는 무료다.

로보티즈AI의 ‘일개미’는 가로 733mm, 세로 549mm, 높이 729mm 크기의 실외 자율주행로봇으로, 무게는 66~70kg이다. 적재함 구성에 따라 싱글형·오픈형 옵션이 있으며, 연속 주행 시 6시간 사용 가능한 자율 충전 방식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일개미’ 도입으로 소상공인에



한양대 ERICA 캠퍼스 지역에 투입될 실외 자율주행 배송로봇 ‘일개미’ 사진.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게는 배달비 비용 절감의 효과를, 인근 지역 주민과 학생에게는 또 다른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한양대 ERICA 캠퍼스 내 자율주행 실외 로봇 배달서비스를 시작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시는 AI와 로봇산업을 비롯한 첨단산

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미래 기술 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 미니인터뷰

### “10m가 사라진 갈대습지 누군가는 외쳐야 했다”

최종인 시화호지킴이·한국수달네트워크 공동대표

시화호지킴이이자 한국수달네트워크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최종인 대표는 지난 10여 년간 시화호 갈대습지 임구에서 벌어지는 침식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시민 환경운동가다. 그는 “갈대습지 임구는 매년 1m씩, 10년 동안 10m가량 깎여나갔다”며 “이제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안전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존 설명이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공은 장마철 강우로 인해 침식이 발생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시화호조력발전소가 가동되기 전에는 침식 현상이 없었다. 조력발전 이후 외해의 물이 좁은 수문을 통과해 강한 흐름이 생기면서 호안이 깎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의 문제 제기는 지역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서 쉽지 않은 싸움이 었다. 하지만 박태순 안산시의회의장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외면할 때 박 의장이 바로 서 주었다. 저는 문제를 제기했고, 박 의장은 실무적 뒷받침을 해줬다. 결국 이번 성과는 협력의 힘”이라고 평가했다.

그 결실은 최근 한국수자원공사가 착수한 ‘시화호 상류 하천 사면 침식 및 홍수 영향 조사 용역’이다. 용역은 내년 9월 결과가 나오며, 약 100억 원 규모의 보강공사가 추진될 전망이다. 최 대표는 “환경운동가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시화호지킴이이자 한국수달네트워크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최종인 대표를 신문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최종인 대표는 할 말이 많았다. 그리고 신념이 넘쳐났다. 그의 주장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이라면서도 “무너져 내리는 도로를 두고 위험을 방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안산시의 책임도 분명히 짚었다. “갈대습지 진입도로에 우수관로가 없어 비만 오면 도로가 넘치며 침식이 가속된다. 아래는 호수물이, 위는 빗물이 깎아내는 이중침식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환경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사업이 안전과 생태를 지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안산시 ‘오소가게’ 간담회 열고 장애인 권익 향상 논의



김영식 복지국장(맨 앞줄 왼쪽 일곱번째)이 2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권익 옹호업소 ‘오소가게’ 상점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다운 기자

안산시는 지난 2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권익 옹호업소 ‘오소가게’ 상점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오소가게’는 안산시와 안산시장에 인복지관, 상록장애인복지관, 사회협동조합 꿈꾸는 그림보가 함께 추진하는 전국 최초 장애인 친화상점 인증 사업이다.

의료기관과 이·미용실, 음식점, 카페 등 생활밀착업소를 대상으로 ▲ 출입구 턱제거 ▲이동 동선 확보 ▲그림소통판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도구 비치 등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상점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현재 관내 228개 업체가 ‘오소가게’로 지정돼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오소가게’ 사업

에 참여 중인 상점주 30여 명을 초청해 사업 운영 현황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모범 상점주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다.

또한, 행사에서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사회협동조합 꿈꾸는그림보의 공연팀과 오소내일가게의 텃밭공작연의 사전공연이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김영식 복지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장애인 친화상점 ‘오소가게’사업을 상점주와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jdujdu000@nate.com

##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관행 개선 촉구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공익소송 추진단(사무국 안산녹색소비자연대)이 쌍방과실 자동차사고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자기부담금이 부과되는 현행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대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추진단은 12월 4일 열리는 관련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역사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제도에서는 약관의 모호함과 정보 비대칭이 여

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 과정에서 자기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기 어려운 구조이며, 사고 후 보험처리가 끝난 뒤에야 자신의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의 부담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보험사별 기준도 제각각이고 손해사정 절차 역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운영돼 소비자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안산시, 일반수도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5년 연속 영예

안산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한 ‘2025년 일반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 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광역 상수도 사업자 167개소를 대상으로 I 그룹 특·광역시, II 그룹 20만 이상, III 그룹 20만 미만 급수인구 지자체 등 특성별·급수인구 별로 나누어 진행됐다.

상수도 일반, 상수도운영 및 관리분야, 상수도 정책분야 등 모두 3개 분야 27개 항목에 대한 기본평가, 현장

평가, 종합평가 등 총 3단계 평가가 이뤄졌다.

안산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시설의 고도화 노력 ▲ICT기술을 접목한 수량과 수질의 과학적 관리 ▲종이팩 자판기 운영 등 수도물 음용률을 향상하기 위해 펼친 정책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아 II 그룹(급수인구 20만 이상 지자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시는 5년 연속 우수기관(최우수 3회 포함)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오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워크숍에서 표창을 수여받을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수상으로 일반수도사업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말했다

또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 소비자 정보대학 골프회로부터 후원금 100만 원 기탁받아

안산시는 지난 3일 소비자 정보대학(회장 이공희)으로부터 사랑의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 정보대학 골프회는 회원 간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전개해

왔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공희 회장은 “진정성이 담긴 나눔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단체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복지국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소비자 정보대학 골프회 이공희 회장님과 회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신속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 “쿠팡의 로켓 영입, 고객정보 보호 아닌 정부 방어망 강화에 초점”

김현 국회의원, 강하게 질타  
플랫폼 기업 규모 커질수록  
사회적 책임도 커져야...

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안산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를 통해 최근 발생한 쿠팡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쿠팡의 구조적 책임과 정부의 대응 미흡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현안질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와 차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정보유출 당사자인 쿠팡 박대준 대표와 브렛 매티스(Brett Matthes) 정보보호책임자(CISO)가 출석해 당시 보안관리 실태와 대응 과정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김현 의원은 “쿠팡은 고객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 그동안 대관 조직과 법조·전관 인맥을 확장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왔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 사법리스크 방패막이로 대관·전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은 미국 기업으로, 알파한 상술로 3,370만 명의 국민을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이지만, 정작 보안은 뒷전이고 로비와 인맥을 통해 사태를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쿠팡은 2020년 이후, 대관 조직을 60~100명 수준으로 확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한승 전 쿠팡 대표(전 판사) ▲정종철 쿠팡풀필먼트 대표(전 판사·김앤장 변호사) ▲홍용준 쿠팡 로지스틱서비스 대표(전 검사·김앤장 변호사) 등 전직 판·검사 출신 임원들이 핵심 요직을 맡아온 점 역시 ‘사법리스크 대비용’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2년 동안 검찰·공정위 출신 등 퇴직 공직자 14명을 추가 영입한 사실까지 확인됐다”며 “이는 제도적 개선보다 인적 네트워크로 규제를 우회하려는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양홍석 변호사가 “전관·법조 영입이 사실상 로비 창구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분석도 함께 언급했다.

아울러 쿠팡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대통령실 국제법무비서관·법률비서관, ▲총리비서실 공보실장 등 윤석열 정부 주요 보직으로 연이어 이동한 사실에 대해서도 “기업과 정부 사이의 인적 연결 구조가 객관적 조사와 관리·감독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안질의에서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 앱에 등록된 결제카드를 즉시 삭제하고, 카드 비밀번호와 쿠팡 로그인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거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유심 교체까지 진행한 만큼 이번 사안 역시 최악의 사태까지 고려해 대책을 공시하고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 국회의원은 “쿠팡은 3천만 고



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를 통해 최근 발생한 쿠팡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쿠팡의 구조적 책임과 정부의 대응 미흡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김현 판·검사 등 ‘로켓 영입’ 방어망 강화 |     |             |                     |    |
|--------------------------|-----|-------------|---------------------|----|
| 회사                       | 성명  | 직책          | 설명                  | 비고 |
| coupang                  | 강한승 | 전 대표이사      | 윤석열 사시 23기 동기       | 영입 |
|                          | 정종철 | 쿠팡풀필먼트서비스대표 |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김&장 변호사 | 영입 |
|                          | 홍용준 | 쿠팡로지스틱서비스대표 | 전 서울지법 검사·김&장 변호사   | 영입 |
|                          | 추경민 | 부사장         | 전 국회 보좌관            | 영입 |
|                          | 민병기 | 부사장         | 전 삼성전자 대관 총괄        | 영입 |
|                          | 김진균 | 전무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 영입 |
|                          | 이상진 | 상무          |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부장    | 영입 |
|                          | 김영대 | 전 부사장       | 윤석열 대선 캠프·대외협력 비서관  | 합류 |
|                          | 이영상 | 전 법무담당 부사장  | 윤석열 국제법무비서관·법률 비서관  | 합류 |
|                          |     |             |                     |    |

판검사 등 ‘로켓 영입’ 방어망 강화 PPT

김태창 기자

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지만, 반복되는 보안 사고와 부실 대응으로 신뢰를 잃고 있다”며 “특히 이번 사태를 책임지는 쿠팡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회적 책임도 커져야 한다”며, “고객정보 보호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법이 정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중 현장활동 실시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중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지난 2일 상록구 위치한 청소년자유공간 두 곳 방문 본예산 관련 타당성 검증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명훈)가 제300회 정례회 중 안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안산동과 반월동에 위치한 청소년자유공간 두 곳을 잇달아 방문해 예산 관련 현장 점검 활동 벌였다.

이날 현장활동에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과 김유숙 부위원장, 김재국 현옥순 박은경 최찬규 선현우 위원이 참여했으며, 위원들은 현장에서 현안 사항을 파악하고 안전 심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했다. 위원들이 찾은 안산동 청소년자유공간 ‘별다락’과 반월동 청소년자유공간 ‘반다락’은 지역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시 교육청소년과 소관이

며 현재는 안산시청소년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본오2동에도 ‘보노락’이라는 청소년자유공간을 개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 시설을 둘러본 위원들은 댄스룸 및 코인 노래방, 실내 클라이밍, 포토부스, 뮤직룸, pc 존, 카페테리아 등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인했고 다락방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은 “사용자 중심의 시설이 확충된만큼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이 ‘별다락’과 ‘반다락’을 이용할 것으로 본다”며 “운영 주체인 청소년재단이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지역 청소년들 누구나 소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중 현장활동 실시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설호영)가 지난 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안전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휴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본 사업의 추진 배경과 현황을 보고받고,

사업 대상지 일대를 직접 둘러보며 향후 추진일정과 조성계획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휴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시화지구 5공구 77ha 내)에 총 330m 길이의 건식 맨발길(폭 1.5~1.8m)을 조성하고,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한 세족장 1개소(3구)와 휴게 시설, 안내판 설치 등을 포함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이 중 7천

만 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은 시비로 편성됐다.

위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맨발길 조성 과정에서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휴지 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민들의 이용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조성 과정에 세심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구 봉 도 앞

# 명품 바다뷰

- ◆ 탁 트인 바다뷰 ◆ 시원한 술발정원
- ◆ 운치있는 야외테라스 ◆ 반려동물 놀이터
- ◆ 최근 주방시설 및 인테리어 완비

\* 70평 1층 식당

\* 시설비 2,000만원

\* 보증금 3,000만원 / 월 250만원

\* 전전세 잔여기간 39개월

김선중 공인중개사 ☎ 010-3199-4992





# 대부도에서 만나는 ‘진짜 손맛’ — 정성으로 차려낸 한 끼, 진미식당

## 상동에 위치한 뷔페 식당

바다 향기가 스며드는 대부도 한가운데, 변함없는 손맛과 신선함으로 사랑받는 곳이 있다. 바로 대부도 상동에 자리한 진미식당(진미마을)이다. 이곳은 “매일 매일 신선함을 안전하게 고객에게 전달한다”는 원칙 아래, 대부도 현지에서 직접 공급받은 재료만을 사용해 식탁 위에 신선함을 바로 올린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점심시간마다 “오늘은 뭐 먹지?” 하는 고민이 따른다. 이런 날, 진미식당을 찾는다면 고민은 단번에 해결된다. 이곳의 가정식 백반 뷔페는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던 정성 가득한 밥상을 그대로 재현한 듯하다. 군더더기 없이 깊은 양념, 손맛이 살아 있는 반찬들, 그리고 매일 달라지는 다양한 메뉴가 손님들의 발걸음을 끊임없이 이끈다. 특히 ‘대부도 로컬 시그니처’로 자리잡은 진미식당의 백반 뷔페는 푸짐함과



대부도 상동에 자리한 진미식당(진미마을)은 바다 향기가 스며드는 대부도 한가운데, 변함없는 손맛과 신선함으로 사랑받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과 정직함의 상징이다. 직접 만든 반찬과 정갈한 상차림이 더해져 가격 대비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대부도 주민뿐 아니라 외지 방문객들에게도

꾸준히 입소문이 나고 있다.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상동)에 위치한 진미마을, 이곳에서의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맛있는 추억 한

페이지’를 남겨주는 시간이다. 진짜 손맛, 신선한 재료, 따뜻한 인심을 느끼고 싶다면 오늘의 한 끼를 진미식당에서 완성해보자. 윤성용 기자

# 대남초, 경기도청소년수련원서 ‘2025 솔향축제’ 개최

## 학생·학부모 함께 화합의 무대

대남초등학교(교장 송문희)가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3층 대강당에서 ‘2025년도 꿈꾸는 우리들의 솔향축제’를 열었다. 학교 내 강당이 없어 외부 공연장을 대관해 진행된 이번 축제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소통하는 특별한 문화의 장으로 꾸며졌다. 행사는 대남초 학생회장과 부회장의 사회로 활기차게 막을 올렸다. 송문희 교장과 서연주 학부모회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각 학년별로 1부 연극마당이 이어지며 학생들의 창의력과 표현력이 돋보였다. 무대에 오른 아이들은 짧지만 알찬 연극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2부 ‘오카리나 마당’에서는

유치원생들의 귀여운 공연이 분위기를 더욱 화사하게 만들었다. 1·2학년 학생들은 공동 무대에 올라 맑고 순수한 오카리나 선율을 들려주며 축제의 중심을 채웠다. 특히 전체 합주곡 ‘안녕하-사운드 오브 뮤직’은 행사장을 찾은 학부모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그동안 솔향축제는 대남초 학생들이 학부모를 초청해 1년간 배운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큰 규모의 공연장을 대관해 진행하며 더욱 안정된 공연 환경과 넓은 관람 공간을 제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축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남초는 이번 솔향축제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성취의 기쁨을,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성장을 함께 느끼는 뜻



대남초등학교(교장 송문희)가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3층 대강당에서 ‘2025년도 꿈꾸는 우리들의 솔향축제’를 열었다. 김태창 기자

깊은 시간을 선사했다. 학교는 앞으로 학생들의 재능 발굴과 공동체 의식을 도모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창 기자

# 안산시, 대부도 주요 도로 3곳 정비 사업 마쳐… 교통흐름 개선 기대

안산시는 대부도 지역의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해 추진한 대선로(북동삼거리 일원) 확·포장공사, 대부북동-상동교차로 개선 공사(대부도서관 앞), 소로2-대부106호선(방아머리 어반아일랜드 입구) 개설 공사 등 주요 도로 기반시설 정비 사업 3건을 모두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북동삼거리 일원의 대선로 확·포장 공사는 주말 및 휴가철 차량 통행량 급증과 도로 협소로 인한 상시 정체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차로 수 확대와 보행환경 정비를 통해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도 차량 흐름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상습 정체가 잦았던 대부북동 상동교차로는 이번 사업으로 좌회전 차로 확보와 교차로 구조를 재정비해 대남로 방향 집중 차량 흐름을 효과적으

로 분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소로2-대부106호선 역시 개설공사가 완료되면서 주민 이동 불편이 해소되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3개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대부도의 주말 교통 특성을 고려한 도로망이 완성됨에 따라 차량 분산 효과와 발휘돼 전체 혼잡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대부도의 불편한 도로를 안전하고 쾌적한 길로 바꾸는 것을 중점 추진해 왔다”라며 “주민들의 배려로 공사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교통 흐름이 개선되면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 이동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희재 기자

## 대부동주민자치회 2기 위원 31명 확정… 내년 1월 본격 출범

대부동주민자치회가 제2기 주민자치위원 선출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주민자치위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41명이 지원했다. 이후 11월 12일 선정위원회가 개최돼 31명의 위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41명의 지원자 중 39명이 참석했으며, 심사 결과 8명이 선정 명단에서 제외됐다. 합격자 통보는 11월 26일 개별 전달됐으며, 선정 과정은 주민자치회 운영조례 및 운영세칙을 기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

졌다. 선정위원 5명은 장봉순 대부동장, 백종선 전 동장, 김태성 주민자치회장, 허영희 주민자치위원, 경실련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돼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는 평가다. 제2기 대부동주민자치회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2년 임기에 들어가며, 출범 직후 회장·감사 등을 선출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지역 현안 논의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기대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참여 확대와 민주적 운영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구봉도상가번영회 2025년도 정기총회 개최



구봉도상가번영회 2025년도 정기총회가 2일 오후 4시 구봉도 소재 화이트아일랜드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학운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 김학운 회장과 감사 재추대 정관도 열띤 토론 일부 개정

구봉도상가번영회(회장 김학운) 2025년도 정기총회가 2일 오후 4시 구봉도 소재 화이트아일랜드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 안건은 회장선출, 감사선출, 회칙개정안 등 3가지 사항이었다. 회장은 김학운 회장이 만장일치로 재 추대됐다. 감사 역시 고종건 감사가 만장일치로 재 추대됐다. 회칙 개정은 여러 가지 조항에서 열띤 토론이 있었고 일부 조항이 개정됐다. 먼저 제3장 임원에서 제11조 직무 및 대우 ② 『감사는 재무상태 및 회계의 관련 업무를 연 1회 감사하며, 총회에서 보고한다』를 제6장 재정에서 ② 『회장은 정기총회 월례회 1주일 전까지 감사에게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를 『회장은 정기총회 후 다음 월례회 1주일 전까지 감사에게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로 개정하기로 하고 제11조 직무 및 대우 ② 『감사는 재무상태 및 회계의 관련 업무를 연 1회 감사하며, 정기총회 후 다음 월례회 1주일 전까지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로 개정하기로 했다. 제4장 총회 제12조 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실시하고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리며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회원은 총회출석인원으로 하되 회원 중 과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된다』로 개정하기로 했다. 제6장 재정 제16조 수입 ① 『회비는 월 2만원으로 하고 3월 안에 1년회비 완납시 22만원으로 한다』를 『회비는 월 2만원으로 하고 2월 안에 1년회비 완납시 22만원으로 한다』로 개정하기로 했다. 제8장 기타 제21조 벌칙 ③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회비 미납 또는 6개월 이상 월례회 미참석 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회비 미납 또는 6개월 이상 월례회 미참석 시』로 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9장 부칙 ③ 『구봉도상가번영회 4개 구역은 따로 정한다』를 『구봉도상가번영회 3개 구역은 따로 정한다』로 기존 4개 구역을 3개 구역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김학운 회장은 인사말에서 “또 다시 기회를 쥐고 감사지만 책임감도 두 배로 커지는 느낌이다. 그동안 회장을 10년 넘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엔 2년을 더하게 되는 만큼 할 일이 많다고 본다”고 말하고 “앞으로 2년이 구봉도상가번영회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중요한 해가 될 터인데 열심히 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고종건 감사도 인사말을 통해 “다시 감사로 추대해줘 감사하다”면서 “총무가 감사에게 자료도 잘 주고 일정도 잘 챙겨줘야 감사가 잘 되는 것만큼 총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대부파크골프장 12월 22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휴장

## 개장일정은 날씨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도 있을 듯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잔디광장에 마련된 임시 파크골프장이 오는 12월 22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휴장하게 된다. 이는 신길공원에 마련된 파크골

크장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잔디광장에 마련된 임시 파크골프장은 통제된다. 다만 날씨 여건에 따라 개장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는게 대부해양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안산시, 대부도 등 수산업 · 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심의회 개최

안산시는 지난 4일 안산시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대부도와 풍도·육도를 중심으로 한 수산업·어촌 분야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심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부위원장인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의 주제로 어업인 대표, 관계 행정기관, 수산분야 전문가 등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심의회는 안산시 수산업·어촌 분야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한 2026년~2030년 안산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과 2026~2027년 귀어·귀촌 지원계획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의가 이뤄진 두 계획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및 어촌 고령화에 따른 소멸위기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수산업 유통·가공 육성 ▲수산업 생산기반 강화 ▲어촌공동체 활성화 ▲귀어·귀촌 및 어촌정착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앞줄 왼쪽 첫번째)이 4일 안산시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희재 기자

지원 등을 중점 추진 전략으로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심의회에서 확정된 주요 사업을 연차별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해양수산부와 경기도에

국·도비 지원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허남석 부시장은 “안산은 수도권에 인접한 수산업과 해양의 요충지”라며 “심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해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이끌고 활력이 넘치는 어촌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 市, 도쿄 코트라·자동화센터 공식 방문... 투자 협력 모색

안산시는 로봇산업 육성과 경기경제자유구역 ASV지구 홍보, 해외 투자·교류 기반 강화를 위해 지난 3일 코트라(KOTRA) 도쿄무역관과 도쿄 자동화센터(OMRON Automation Center Tokyo)를 공식 방문했다고 4일 밝혔다.

‘안산시 로봇산업 육성 경제사절단(단장 이민근)’은 로봇 분야 세계 최대 수준의 비즈니스 박람회인 ‘2025 도쿄 국제로봇 전시회(iREX 2025)’ 참관과 일본 로봇 산업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로봇 기업 유치와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자 지난 2일부터 일본 도쿄를 공식 방문 중이다.

문제어기기(주) 대표이사와 만나 한·일 간 로봇·자동화 분야 협력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도쿄 자동화 센터(OMRON Automation Center Tokyo)는 도쿄 시나가와에 소재한 첨단 공장 자동화 기술 센터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제조 혁신을 지원하며, 고객이 직접 최신 자동화 솔루션을 테스트하고 맞춤형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원스톱 협업 공간을 갖추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는 지난 9월 경기경제자유구역 ASV지구 지정을 계기로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이 안산과 일본 간 산업·기업 협력의 실질적 매개체가 되어, 로봇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동시에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절단은 이날부터 이틀간 로봇 분야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박람회인 ‘2025 도쿄 국제로봇 전시회(iREX 2025)’를 참관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iREX참여 국내 기업, 일본 미쓰비시 등 포함한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ASV지구 투자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대부도저널 광고문의  
☎ 032-880-9994

이어 경제사절단은 도쿄자동화센터(OMRON Automation Center Tokyo)를 방문, 김영호 한국오

거 친화적 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안산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

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 대부도 자전거길 관광 활성화 위한 팸투어 진행



안산시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4일 대부도 일대에서 자전거길 관광 활성화를 위한 팸투어를 진행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시는 지난 4일 대부도 일원에서 자전거길 관광 활성화를 위한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부도 자전거길과 주요 관광지를 참가자들이 직접 달려보며, 자전거 이용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개선점과 관광 활성화 방안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관내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로 이뤄진 이번 팸투어 참가자들은 중앙도서관을 출발해 ▲시화나래휴게소 ▲방아머리 음식문화거리 ▲바다향기테마파크 ▲동춘서커스 ▲대부해솔길 등 대부도 주요 명소를 자전거로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여자들은 관광지 접근성, 안전한 이동환경, 이용 편의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각자가 보유한 소셜미디어

(SNS)에 코스 후기와 현장 사진 등을 공유하며 자전거길 관광지로서 대부도가 가진 매력을 홍보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한 참가자는 “대부도 자전거길을 실제로 달려보니 경관도 좋고 코스 난이도도 적당해 많은 시민이 즐기기에 충분하다”며 “많은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라이더가 찾아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팸투어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다양한 시민층이 참여할 수 있는 자전거 기반 체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전한 라이딩 환경 조성 및 체류형 관광 확산을 위한 정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직접 현장을 누비며 제시해 주신 의견들인 만큼, 개선 방안 등은 더욱 세심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자

## 대부도저널 직원 모집

| 모집부문            | 인원  | 자격요건                                                                                                        |
|-----------------|-----|-------------------------------------------------------------------------------------------------------------|
| 광고 / 사업국 (남, 여) | 0 명 | 경력사항 : 신입 / 경력(연차무관)<br>학력사항 : 고졸이상<br>나이 : 30 ~ 60대<br>기타 :<br>- 대부도 및 안산 거주자 우대<br>- 차량소지자 우대<br>- 경력자 우대 |

-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1부, 이력서 1부
- 제출기간 : 채용시까지
- 대우 : 4대보험 가입, 급여는 연봉 협의 후 결정
- 서류제출 : E-mail dj250407@naver.com

※ 직접 내방이나 우편접수도 가능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 97, 3층 (대부북동)  
대부도저널(주) 총무국 ☎ 032-880-9994



대부동 주민자치회, 우리동네 탐험대 시즌2 개최



단원구 대부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일 대부도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탐험대 시즌2’를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부도의 문화·예술 자원을 어린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남·대부·대동초교 1~3학년 학생들이 참여해 도예와 유리공예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세종도예원, 유리섬박물관에서 지역 예술자원의 가치를 체험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성 주민자치회장은 “우리동네 탐험대 시즌2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대부도에 대한 애郷심을 갖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이라며 “아이들의 경험 이 지역 공동체의 미래에도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봉순 대부동장은 “어린이들의 체험 중심 교육은 지역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대부동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본오3동 통장협의회, 빗물받이 일제 정비



상록구 본오3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3일 동절기 한파 및 적설로 인한 배수불량 및 결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빗물받이 1,127개소에 대한 일제 정비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과정에서 낙엽·쓰레기 등으로 막혀 배수 기능이 저하된 빗물받이를 집중적으로 청소하고, 배수불량이 확인된 구간은 즉시 재난 담당 공무원에게 위치를 공유해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김윤자 통장협의회장은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본오3동을 제공

하기 위해 오늘 빗물받이 배수구 정비에 동참했다”고 말했으며, 안금순 자율방재단 대표는 “겨울철 결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힘을 모아 활동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말했다.

배지홍 본오3동장은 “추운 날씨에도 참여해 주신 통장님들과 자율방재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동절기 배수불량 및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신길동, 군자새마을금고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기탁



단원구 신길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군자새마을금고로부터 사랑의 김장김치(250만원 상당)를 기탁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김장김치 후원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식사 준비가 어려운 관내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받은 김장김치를 홀몸 어르신,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신길동은 겨울철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 확대에도 계속 힘을 기울인다.

이상기 군자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추운 겨울을 맞는 이웃들이 따뜻하고 든든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작은 마음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나눔 실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인 신길동장은 “겨울철 꼭 필요한 김장김치를 후원해 주신 군자새마을금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전해 주신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해 어려운 이웃들이 힘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jdjudu000@nate.com

와동 새마을회, 이웃사랑 김치나눔 행사



단원구 와동 새마을회는 지난 2일 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성가득 사랑 듬뿍 이웃 사랑의 김치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와동 새마을회는 올 한 해 반찬 및 식재료 나눔과 도배, 장판 봉사 등을 여러 차례 진행해, 와동 내 복지 증진에 크게 이바지했다.

김치동 회장은 “추위에 떨고 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치를 준비할 수 있어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발로 뛰는 와

동 새마을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영숙 부녀회장은 “항상 와동 공동체 내 어려운 이웃들과의 유대를 생각하는 와동 새마을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수애자 와동장은 “매서워지는 추위 속 와동의 취약계층들을 위해 사랑을 나눠주신 와동 새마을회 회장님들과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와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와동 새마을회의 뜻깊은 활동에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원곡동 새마을회, 김장나눔으로 따뜻한 겨울맞이



단원구 원곡동 새마을회는 지난 2일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저소득층 370여 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안산군자새마을금고(이사장 이상기)와 트레이더스 안산점, 원곡동 직능단체의 재료 후원으로 치러진 이번 김장나눔 행사는 원곡동 새마을회원 20여명과 통장협의회회원 30명이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전유현 새마을회장과 한희정 부녀회장은 “오늘 부쩍 쌀쌀한 겨울 날씨

인데 김장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회원들의 정성과 후원기관의 도움으로 올해도 많은 이웃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상기 안산서부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주민들 결의 든든한 금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주민복지 향상과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jdjudu000@nate.com

월피동 3개 어린이집, 합동 바자회 수익금 기탁



상록구 월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관내 위치한 어린이집 3곳에서 합동 바자회를 개최해 마련한 수익금을 전달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성금을 기탁한 어린이집 3곳은 동동어린이집(원장 박경희), 중앙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김선경), 밤비니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이여진)이며, 월피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정 기탁돼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선경 중앙몬테소리어린이집 원장

은 “아이들과 학부모, 원장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만 월피동장은 “지역 어린이집에서 정성을 다해 보내준 따뜻한 마음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전달받은 성금을 필요한 이웃에 잘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대부도저널

“ 운영위원 ” 을 모십니다 !



대부도저널은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입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대부도와 안산시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언론을 꿈꾸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 우리 대부도와 안산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함께 하실 분은 연락 주십시오.

대표전화 : 032-880-9994  
핸드폰 : 010-4900-4152 (김태창 편집국장)

대부도저널





**법률사무소 화쟁**  
PARK & KIM LAW OFFICE

깊이 듣고, 끝까지 함께 합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박태훈** 대표변호사

연락처 : 010 - 7929 - 8012

**약력 및 경력**

現) 법률사무소 화쟁 대표변호사  
現)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고문변호사  
現) 경기도 운수연수원 외 다수법인체 법률고문변호사  
現) 수원지방법원 조정위원

前) 경기도 경찰청 민간교통심사위원회 위원장  
前)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前)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前)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  
前) KT 고문변호사  
前) 서울마주협회 고문변호사  
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 상임이사  
및 24회 동창회장  
前)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지역부총재,  
법제위원장, 감사  
前)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및 법과대학 상임이사

**변호(담당) 전문 분야**

- ◆ 형사 소송
  - ▶ 성범죄(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명예훼손(사자) 및 모욕
  - ▶ 강력범죄(상해, 폭행치상), 재산범죄(사기, 횡령, 보이스피싱 등)
  - ▶ 학교폭력(장보망 허위사실유포 등) 및 중대재해법(기업 및 법인 포함)
  - ▶ 도로교통법 위반(뺑소니, 음주운전) 사건·해양포함
- ◆ 형사 소송
  - ▶ 대역금반환청구,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신청
  - ▶ 가압류가처분, 각종 기업소송 및 자문
  - ▶ 중대 교통사고(손해사정)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물·인적)
  - ▶ ※운전자보험(변호사 방어비용 선임) 및 면허행정소송 등
- ◆ 행정 소송
  -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증액(감액), 면접교섭변경신청,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 ▶ 공무원 요양 승인신청,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 자문
  - ▶ 공무원행정소송 등



**이레 법무사**  
法務士 **신 선 미**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금로 1325, 3층 (대부북동)  
Tel : 032 - 881 - 1145 Fax : 032 - 881 - 1165

Mobile : 010 - 8865 - 3882  
E-mail : lawhelperv@hanmail.net

**이레 법무사**  
法務士 **신 선 미**

[ 전문분야 ]

- 동기분야
  - 상압/ 법인/ 부동산/ 선박
  - 상속/ 증여
  - 민사소송분야
  - 소장/ 항소/ 항고
  - 답변서/ 준비서면
  - 형사소송분야
  - 고소장/ 항소/ 항고
  - 개인회생, 개인파산
- 신청분야
  -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 집행 및 강제집행
  - 압류/ 강제집행/ 추심/ 전부
  - 법원에 관련 된 모든 일
  - 가족관계등록 (호적\_
  - 공탁/ 비송분야
  - 가사소송 (이혼/ 인지/ 양자)
  - 행정소송

# 광 고 문 의

032 - 880 - 9994      dj250407@naver.com

**대부도저널**

**프리미엄 선물용 타올**  
맞춤제작, 로고자수, 감성포장  
KC인증/OEKO-TEX 1등급, 유아안전인증

1. 행사 답례품 : 기업, 관공서, 학교, 교회  
2. 숙박업 호텔 리조트용, 가정 생활용

**J&CROSS 대표 최재원 M:010.7259.2177**

**\* 주 택 급 매 \***  
대부남동 흥성리  
대지87평 도로13평 건물17평  
주택완공조건

현재시세 ~~3억3천~~ **반값** ~~1억7천~~에 급매

**김선중 공인중개사 M: 010.3199.4992**

**대부도핫플**  
오션뷰 브런치카페  
**카캉스**

조재숙 M: 010.2492.1800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금로 1501-1

**히든펜션 HIDDEN PENSION**

**히든 펜션**  
최은숙

안산시 단원구 대호1길 19 M : 010.9913.8956

전 객실 바다전망 테마가 있는 유럽풍 펜션

**아티네펜션**

차준경 M: 010.5353.2755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622-5

**미래기획**  
mi-re enterprise

25년 경력 간판. Led채널. 현수막. 씀팅. 현수막

**이 병 철 M: 010.9366.9699**

**행정사사무소**

**박정탁 M: 010.2378.712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한주토목측량설계공사**

**김장식 M. 010.5345.985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40-1 (대부북동)

**최욱진 세무회계사무소**

**최욱진 T: 031.8042.6670**

안산시 상록구 28,201호(본오동,보노피아빌딩)

**선재낙시공원**

**조부형 T. 032-710-4340**

**대부도 바움펜션**

**황진 M. 010-7741-1150**

**(주) 황금토목측량설계공사**

**유재용 M. 010.3433.46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로1288 (대부북동)

**GS25 대부포도점**

**빈호준 M. 010.9220.203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132(대부남동), 202호

**말부흥 어촌계**

**계장 신준선 M. 010.7340.5511**

**바지락마을손칼국수2호점**

**백영태 M. 010.4403.449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해안로42 (대부북동)

**리라조경**

**박용복 M. 010.3703.9300**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재로 34번길 23, 103호

**K3 바다낙시터**

**최병희 T. 032-885-522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643-35

**용담바다낙시터**

**오준태 T. 032-886-8969**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용담바다낙시터

**등대바다낙시터**

**이한중 T. 0507.1331-134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87-4

**반달섬 분양 임대 매매**

**(주)대동토지개발**

**양금순 M: 010.8722.5095**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633, 118호

**규현공방**

수족관 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조규현 M: 010.4071.2797**



#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웅진군에 따뜻한 겨울나기 이불 72채 기탁

웅진군은 지난 2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회장 조흥수)로부터 관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겨울 이불 72채를 기탁받아 따뜻한 나눔의 뜻을 함께하는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큰 도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조흥수 회장은 “도시지역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난방 여건도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눔을 결심하게 되었

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주민들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문경복 웅진군수는 “섬 지역의 경우 기온이 낮고 바람이 심해 겨울철 생활환경이 더욱 취약하다”며, “이번 기탁은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탁받은 물품은 필요한 가정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웅진군은 지난 2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회장 조흥수)로부터 관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겨울 이불 72채를 기탁받아 따뜻한 나눔의 뜻을 함께하는 기탁식을 개최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웅진군 연평면-인천 서구 가정2동 자매결연 협정 체결



웅진군 연평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2일, 인천 서구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평면 주민자치회와 가정2동 주민자치회의 상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자매결연 협정식을 체결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 양쪽 주민자치회에서 실시

웅진군 연평면 주민자치회(회장 박인환)는 지난 2일, 인천 서구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평면 주민자치회와 가정2동 주민자치회의 상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자매결연 협정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매결연협정 체결은 올해 3월부터 양 주민자치회가 추진하여 온 성과이며 문화, 경제, 복지, 자치분야 전반에서 섬과 육지라는 양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는 행사였다.

황준철 연평면장은 “두 지역 주민자치회 간의 새로운 인연을 맺고 서로의 장점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기초를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 서로 배우고 협력하며 따뜻한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 백령면새마을부녀회, 지역 취약계층에 먹거리 판매 수익금 200만원 기부

웅진군 백령면(면장 박상준)은 지난 1일, 백령면새마을부녀회(회장 오정희)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2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 11월 12일 열린 '25년 민·관·군·경·소방 한마음 체육대회'먹거리 판매 수익금 중 일부로, 지역 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오정희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부녀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상준 백령면장은 “새마을부녀회와 같은 지역 단체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백령면새마을부녀회는 지

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다시 한번 큰 역할을 하며, 따뜻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 웅진군가족센터-(주)시티플러스 후원 협약 체결

### 아동청소년 복지향상 위해

웅진군가족센터(센터장 신희경)와 ㈜시티플러스(대표 안혜진)는 지난 2일, 웅진군 관내 취약 가정 아동·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티플러스는 2026년까지 총 1,200만 원의 후원금을 웅진군가족센터에 기탁하며, 해당 금액은 웅진군 아동·청소년의 교육비와 생활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티플러스는 지난 11월에도 웅진군 내 취약 가정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겨울 대비 방한용 이불을 후

원하는 등 지역 사회 복지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다.

안혜진 대표는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희경 센터장은 “이번 후원이 웅진군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해 지역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다운 기자 jdjudu000@nate.com

그 결과, 서비스 참여율은 98%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만족도 역시 88.6점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참여자의 52.8%에서 건강행태 1개 이상 개선되었고, 전체 참여자의 85%는 혈압·혈당·허리둘레·중성지방·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건강지표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등록율은 목표 대비 다소 낮았으나(67.5%) 중도탈락자는 1명에 불과해 참여자들의 높은 참여 의지도 드러났다.

한 참여자는 “매주 전문가 피드백을 받으며 생활습관이 많이 달라졌다”며, “지속적인 관리가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혜련 보건소장은 “도시지역의 지리적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2026년에도 주민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비대면 건강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웅진군가족센터(센터장 신희경)와 ㈜시티플러스(대표 안혜진)는 지난 2일, 웅진군 관내 취약 가정 아동·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 대부도저널과 함께하는 사람들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  
우리은행 선부동지점  
우리은행 안산금융센터  
우리은행 안산남지점  
우리은행 상록수지점  
우리은행 안산외국인특화지점  
해너미마을옹보관 구경호 본부장  
경기도청 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언론홍보담당관  
웅진군 기획감사실 홍보팀  
웅진군의회 의회사무과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기획국 광고지원팀  
보은용사존(주)전력사업소  
보은용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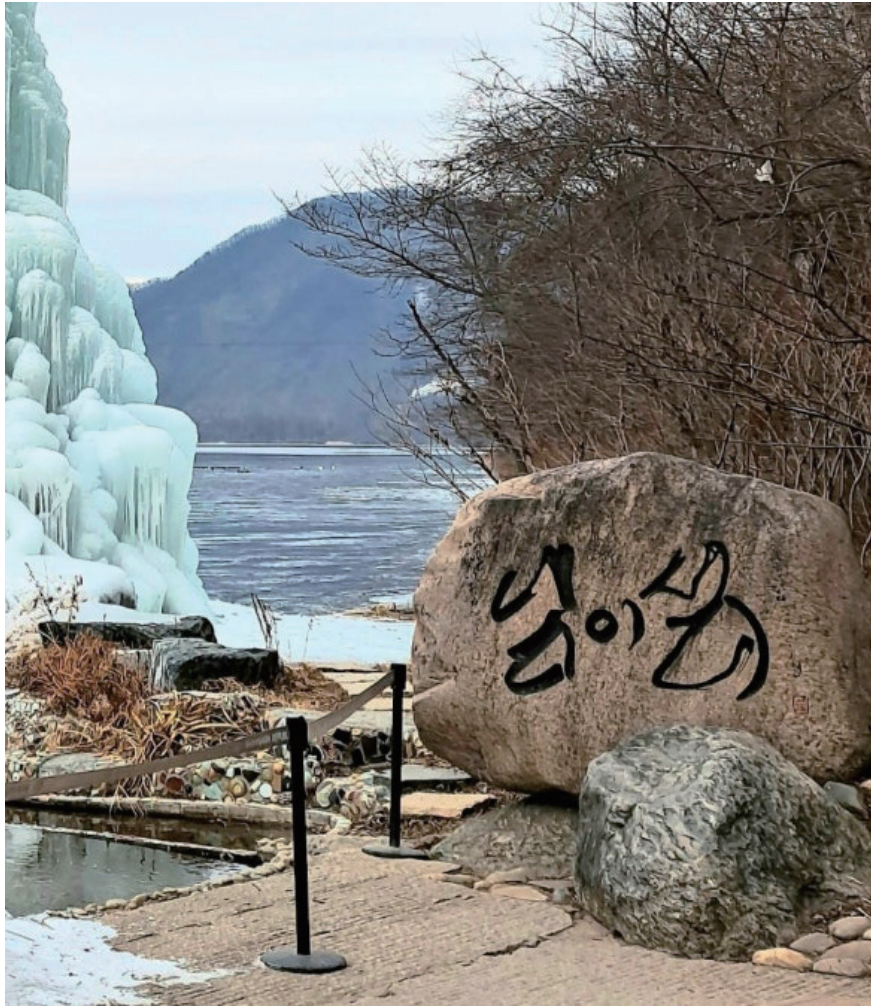
김 현 국회의원  
박해철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양문석 국회의원  
선현우 시의원  
강태영 도의원  
김동규 도의원  
김태의 도의원  
김철진 도의원  
장운정 도의원  
이은미 도의원  
대부동 동장  
그랑도토피와이너리  
나라캠핑장  
안산제일로타리클럽

웅시  
화정식당  
해신마린  
서울안심지과  
포도나무공인인증가사  
대한축량설계사무소  
대부명성한의원  
럭키알인마트  
명성종합토건  
중현어촌체험휴양마을  
그린건축사  
왕금남시티  
이조갈비  
왕금목장  
G 마트

|     |     |     |     |       |
|-----|-----|-----|-----|-------|
| 김선중 | 김민영 | 공미숙 | 차준경 | 유재용   |
| 유강민 | 김민정 | 이재선 | 오준태 | 빈호준   |
| 이정숙 | 김건민 | 김국진 | 김관중 | 정병국   |
| 문기정 | 양임배 | 오성숙 | 양금순 |       |
| 박영철 | 모연구 | 김용현 | 이병철 | — 끝 — |
| 김영란 | 문상필 | 이한기 | 조규현 |       |
| 이길재 | 김경희 | 김시경 | 박정탁 |       |
| 이상성 | 유재용 | 이승용 | 박용복 |       |
| 박익자 | 김중윤 | 정안순 | 조재숙 |       |
| 임원섭 | 김영덕 | 김혜순 | 김장식 |       |
| 정순미 | 백무자 | 장해연 | 신준선 |       |
| 김철중 | 강영복 | 이승창 | 최옥진 |       |
| 박익락 | 송원영 | 박연배 | 조기열 |       |
| 정잔빈 | 이지연 | 이한중 | 왕 진 |       |
| 채만식 | 이정임 | 최병희 | 조부형 |       |



# 겨울, 남이섬이 다시 걷고 싶은 트레킹 명소가 되는 이유



겨울철 남이섬은 한층 고요해진 자연과 청명한 공기가 어우러져 걷기 좋은 최고의 트레킹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계절이지만, 남이섬에서는 오히려 그 차가운 공기마저도 걷는 맛을 더해주는 특별한 매력으로 느껴진다. 사계절 내내 아름답지만, 겨울의 남이섬은 색이 줄어든 만큼 풍경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며, 섬 전체가 거대한 자연미술관으로 변한다.

섬의 상징인 메타세쿼이아 길은 겨울이면 가지마다 맺힌 서릿발과 따스한 햇살이 어우러져 장관을 만든다. 두터운 눈이 내린 날에는 마치 북유럽에 온 듯한 분위기를 연출해, 방문객들에게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낭만적인 겨울 산책길을 선사한다. 또한 자작나무 숲길과 호숫가 산책로는 겨울 특유의 고요함을 담아내며, 트레킹을 즐기는 이들에게 자연과 온전히 마주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남이섬이 사랑받는 또 하나의 이유

는 잘 갖춰진 트레킹 환경이다. 길마다 안내 표지와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초보자도 부담 없이 걸을 수 있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어르신들에게도 무리가 없다. 특히 겨울철에는 방문객이 비교적 적어 혼잡함 없이 여유롭게 섬 곳곳을 둘러볼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또한 남이섬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는 겨울 트레킹의 즐거움을 배가한다. 곳곳에 설치된 예술 작품과 계절 전시, 따뜻한 카페와 편의시설은 트레킹 중 잠시 쉬어가기에도 좋다. 단 순히 걷는 것을 넘어 '머무르는 여행'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이들이 겨울 남이섬을 찾고 있다.

자연의 고요함과 낭만, 편안한 동선과 문화가 어우러진 남이섬은 겨울철 트레킹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명소다. 울겨울, 마음을 비우고 걷고 싶다면 남이섬이 그 답이 되어 줄 것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이은미 의원, 실적 기반 지방보조금 지급 이뤄져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25일 자치행정국 예산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5일 자치행정국 예산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성과평가' 대상 사업 31개 사업 중 ▲미흡 5개 ▲매우미흡 4개로 총 9개 사업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유지필요성평가' 대상 8개 사업 중에서는 ▲미흡 2개 ▲매우미흡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상 운용평가 결과는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 시행 시점과 평가 결과 통보 시점 간의 간극으로 인해 다수의 미흡 사업들이 2025년도에도 사실상 동일한 예산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이은미 의원은 자치행정국이 운

용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로부터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받는 만큼, 이를 면밀히 검토해 즉시 이듬해 예산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6년 예산에 '0원'으로 책정되며 폐지된 일부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단체가 유사한 신규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보조금 수량 규모는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은 지방재정 누수를 막는 것은 물론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투자도 이어진다"며 "성과가 낮은 보조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은 우수한 보조사업이나 약자복지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김동연 지사 “양평 양근대교 확장 공사, 내년 2월 착공하겠다”

### 4일 양평 양근대교 현장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양평 지역 교통 문제를 개선할 '양근대교 확장 공사'에 대해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지사는 4일 2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현장으로 양평군을 찾았다.

첫 번째 투어 일정으로 양평도서관에서 열린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확장 공사 주민설명회를 찾은 김 지사는 “경기도 전역을 다니면서 ‘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진다’라는 구호로 달리고 있다. 가는 곳마다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무엇일까. 늘 고민하는데 오늘은 양근대교”라며 “차질없이 준비해 내년 2월에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4일 오전 양평도서관에서 열린 양근대교 건설공사 현장 주민설명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양평군하고 정말 긴밀하게 협의했다. 들어가는 예산도 이미 정부, 양평군하고 합의를 봤다. 양평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확장공사’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서 양평을

양근리를 잇는 기존 양근대교의 하류에 2차로 교량을 신설해 4차로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도는 2016년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국토교통부)’에 반영 후 주요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타당성 재검토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공사를 발주했다. 내년 2월 착공 및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

진 중이다.

이 일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이 남양평 교차로(IC)를 통해 양근대교와 연계돼 특히 주말이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월 5일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을 통해 경기도 교통정책을 소개하면서 “교통은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는 김 지사의 양근대교 확장 노력에

이런 실천 가운데 하나라며 ‘교통 민생’ 해결 노력이 양평에서도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 연금개혁으로 달라지는 국민연금 한눈에 보기

### 1 연금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9%

2026년부터 1년에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

13% 개혁안

### 2 소득대체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40%

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부터 적용

43% 개혁안

### 3 지급보장을 명문화 합니다.

국가 지급보장

### 4 크레딧 제도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군복무 크레딧

최대 12개월 인정

출산 크레딧

첫째아부터 적용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2026년 1월 1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됩니다.





# 제천 의림지에서 만나는 감성 미식여행 안산시관광협의회 '제천 가스트로 투어' 벤치마킹 나섰다



안산시관광협의회가 지역 관광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제천시의 대표 관광상품인 가스트로 투어(Gastro Tour) 벤치마킹에 나선 가운데 협의회 회원 17명과 사무국, 안산시 관광과 관계자 등 총 22명이 12월 4일 제천 의림지 일원을 찾았다.

윤성용 기자

안산시관광협의회가 지역 관광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제천시의 대표 관광상품인 가스트로 투어(Gastro Tour) 벤치마킹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올해 추진한 사업을 점검하고, 2026년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협의회 회원 17명과 사무국, 안산시 관광과 관계자 등 총 22명이 12월 4일 제천 의림지 일원을 찾았다.

## 의림지에서 배우는 '미식 기반 관광 콘텐츠'

제천시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활용해 미식·카페·산책을 결합한 가스트로 투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많은 방문객을 모으고 있는 도시다. 안산시관광협의회는 그중에서도 관광 만족도가 높은 의림지 B코스(감성 미식 카페 투어)를 집중 벤치마킹했다.

이번 일정은 오전 8시 40분 안산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에서 집결해 대형버스로 제천으로 이동하면서 시작됐다. 제천어번케어센터에서 제천시관광협의회 사무국장이 직접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오후에는 3시간 동안 실제 B코스를 답사하며 동선을 따라 체험형 관광이 어떻게 기획·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 의림지 감성 담은 'B코스 미식 여행'

총 3시간 코스로 구성된 B코스는 '감성의 미식'을 테마로 한 제천의 대표 투어다. 한식·디저트·스페셜티 커피·전통 한식 다과를 모두 체험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1인 비용은 27,5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개 지점에서 각각 개성을 담은 미식을 경험했다.

① 오디향 -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빵인 비빔밥  
꽃향기 가득한 '오색 꽃 비빔밥'과 신선한 빵,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오디·아로니아 등을 사용한 건강 메뉴로 사랑받는 한식당이다. 대표 메뉴 빵인 비빔밥은 자연의 색을 담은 나물과 직접 만든 맛간장이 어우러져 담백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풍미를 선사한다. 제철 나물 반찬과 오디 샐러드, 삼색 목, 도토리 수제비 등 정성이 가득한 찬이 함께 제공돼 식사와 완성도를 높인다.

② 카페 피노 - 솔향기 속에서 즐기는 감성 홍차 티타임  
솔밭공원 옆에 자리해 '모던 아트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카페다. 주인장이 직접 만든 프랑스 자수 작품과 앤틱 소품이 더해져 이곳만의 독특한 감성을 만든다.

대표 메뉴는 큐엔리브즈(KEW & LEAVES) 프리미엄 티와 자체 제작 디저트 '의림지 낮과 밤 티그레'. 특히 국제미각상을 수상한 차(Tea)가 포함된 메뉴 구성은 관광객에게 색다른 '티 컬처'를 경험하게 한다.

③ 카페 쥘네 - 17년 전통의 로스터 커피와 수제 빵  
핸드드립 어워드, 로스팅 챔피언십 등 활약을 펼친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로스터 카페로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하다. 싱글 오리진 원두의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으며, 매일 구워내는 빵 역시 인기다.

특히 소금빵은 우리밀을 사용해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살아 있으며, 맑은 솔밭공원을 바라보며 즐기는 커피 한 잔은 여행의 여유를 더해준다.

④ 약선재 -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궁중 다과' 카페  
약선재는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

석한 전통 디저트 전문 카페다. 전통차와 함께 제공되는 '궁중 다과 한상'은 시각적 아름다움과 건강한 맛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구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오미자차와 함께 제공되는 다과는 금귤정과, 꽃감말이, 도라지정과, 호두정과, 도라지양갱 등 한국적인 맛과 맛을 담아 전통문화 체험 요소로도 손색이 없다.

## 안산 관광의 미래 만들 초석

이번 벤치마킹은 단순 견학이 아닌 안산형 관광 모델 개발을 위한 실질적 탐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제천의 가스트로 투어는 지역 식재료·카페·공방·전통문화를 결합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린 성공 사례로 꼽힌다.

안산시관광협의회는 이번 답사를 통해 안산의 자연환경과 지역자원에 맞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계획이다.

## "미식·문화·산책 결합한 체험형 관광, 안산에서도 가능성 커"

협의회 관계자는 "제천의 가스트로 투어는 지역의 스토리와 감성이 잘 결합된 사례"라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안산만의 식문화, 역사, 자연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시관광협의회는 이번 일정을 마친 뒤 향후 2026년 사업 기획에 이번 벤치마킹 결과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제천 의림지에서의 감성 가스트로 투어 경험은 안산 관광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섬 『대부도 지명 이야기』 8회 중국과 일본, 개성과 한양으로 가는 길목을 차지한 주인공은(상)



晴境(정경) 金善喆(김선철)  
전 대남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대부도가 속했던 남양부 남양만 일대는 신라시대 이래 서해안 지역의 교통·군사적 요충지였다. 화성시 서신면의 당성진(唐城鎭), 송산면의 마산포(馬山浦)와 화랑진(花梁鎭)은 한·중·일을 오가는 길목의 해로(海路)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조선말 이전까지 마산포는 한양으로 가는 가장 큰 포구였다. 마산포 바로 앞에 대부도와 어도(魚島)가 있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막을 수 있었고, 다른 곳보다 수심이 깊어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신라시대에 중국과의 교역로로 활용되었고, 조선시대는 청나라 배들이 드나 들었다. 시화호 간척 전까지 대부도 사람들이 사강 시장이나 육지로 나가는 관문이었다.

해로를 통하여 한·중·일을 오가거나, 삼국시대는 경주(慶州), 고려시대에는 개경(開京), 조선시대에는 한양(漢陽)의 왕을 만나거나 중요한 일을 하러

면 길목에 있는 당성진(唐城鎭)과 화랑진(花梁鎭), 마산포(馬山浦) 앞의 대부도 주변 해로(海路)를 반드시 지나야 했다.

조선말 이전에 배들은 안전한 항해를 위해 육지와 가까운 근해를 이용하였고, 해풍(海風)과 조류(潮流)를 이용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었다. 특히 대부도와 풍도 주변 해역은 조석간만(潮汐干滿)의 차와 조류(潮流)의 변화가 너무 심하여 물길과 지형을 잘 아는 섬사람들 승선시켜 도움을 받았다.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해로는 네 개 코스가 있었다. 코스①은 북방항로로 가장 안전해서 오랫동안 이용한 길이었다. 산둥반도의 등주-발해만-대련-의주-대동강-웅진-마산포까지 이 항로를 이용하다가 풍도-안흥만-군산-목포-거제도-대마도까지 서남항로를 이용했다.

당나라 가탐(賈耽)이 저술한 ‘도리기(道里記)’에 등주를 출발하여 백령도-강화도-덕적도를 거쳐 당은포(마산포)에 이른다. 여기서 육로로 700리 길을 가서 신라의 수도 경주에 도달한다. 대부도 바다는 신라의 수도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코스②는 신라 장보고가 이용한 서해직항로이다. 산둥반도의 적산포와 등주-덕적도-군산-청해진-일본 큐슈 하카타 항로를 이용했다. 고려인들은 벽란도(碧瀾渡)-해주-강령-웅진-장산곶-백령도(흑도; 鵠島)-산둥반도를 이용했다. 이때 산둥반도를 출발하면 남풍계열 혹은 동풍계열의



〈한·중·일 해로(海路)에 위치한 요충지(要衝地) 대부도로 통했던 바닷길〉

영향을 받아 덕적도-풍도-당성포(마산포)-벽란도로 갔기 때문에 대부도와 마산포 사이를 지나지 않을 수 없었다.

코스③은 중국의 연운항과 진포와 회진을 잇는 서해중부사단항로이다. 통일신라 때인 9세기 이후 중국의 관문은 절강성 영파 혹은 양주(揚州)와 금강 하구의 진포(鎭浦), 희안(喜安현 부안), 회진(會津)으로 통하는 해로였다.

코스④는 서해중부사단항로이다. 영암 상대포-흑산도-홍의도(紅衣島; 홍도의 옛이름)-가거도(可佳島)-태주(台州) 영파부(寧波府) 정해현(定海縣)으로 있는 바닷길로 중국 남부

무역항과 한반도 및 일본을 연결하려는 필요성에서 개설된 항로였다. 송나라 사신이 중국 절강의 정해-흑산도-군산-안흥-마산포-강화만-예성강 하구의 벽란도에 도착하는 항해 일정도 역시 대부도 주변 바다를 지나야 했다.

역사적으로 국력이 강성한 나라가 대부도 주변을 차지했다. 정복 군주 근초고왕 때는 백제의 땅과 바다였고, 장수왕 때는 고구려의 것이었고, 진흥왕 때는 신라의 영토였다. 마지막에 차지한 신라가 삼국통일의 주인공이 된다. 후삼국 시대에는 국력이 쇠퇴한 신라, 견훤의 후백제, 왕건의 고려 중 대부도 주변을 지배한 해

## 데스크 칼럼

### 대부파크골프의 미래 갈등 뒤에 남은 과제와 선택



김태창  
편집국장

대부파크골프클럽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조끼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오랜 논란의 그림자는 이제 야서서히 걷힐 기미를 보인다.

그러나 지난 4일 열린 정기총회는 해묵은 갈등을 완전히 정리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다. 감사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제 제기에 귀를 닫은 채 해솔클럽과 바다클럽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을 끝내 클럽장으로 선출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는 듯한 행보에 적지 않은 회원들이 동조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걱정을 남겼다. 훗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지도 모를 선택임에도, 경고의 목소리는 끝내 달지 못했다.

대부파크골프장은 오는 12월 22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긴 겨울 휴장에 들어간다. 시내 신길파크골프장과 함께 동시 휴장하는 이번 조치는 겨울철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만약 개장을 지속할 경우 타지역 동호인 수백 명이 몰려들어 골프장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클럽 내 갈등이 정리될 수 있는 단절의 시간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대립이 더 누적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포도클럽과 황금클럽은 이번 논란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두 클럽이다. 반면 바다클럽은 선거관리위원 경력 논란이, 해솔클럽은 기존 임원 전원 사퇴 후 새 임원을 선출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책임이 여전히 무겁다.

문제는 이들 두 클럽 사이에 낀 선량한 회원들이다. 어떤 이유로든 그 클럽을 선택했다더라도, 회원개개인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다.

다만 문제가 없는 포도클럽과 황금클럽으로 이동할 기회도 있음에도 끝내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영역은 그만큼 좁아진다. 결국 선택의 결과는 회원 스스로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포도클럽과 황금클럽은 안정된 운영 구조 속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대부파크골프장 휴장 기간에도 선감동 대부도파크골프장에서 주말 운동을 즐기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연 2회 이상 전국 투어, 그리고 일본 파크골프클럽과의 우호협약 및 상호방문까지 준비하고 있다. 스포츠 클럽의 톨모델이라 부를 만한 야심찬 청사진이다.

내년을 넘어 2026년, 대부파크골프의 미래는 분명 밝아 보인다. 갈등은 있었지만 그 속에서 더 나은 운영 방향을 찾고자 하는 노력 또한 분명 존재한다.

클럽장들은 시와 협력해 그린 품질을 개선하고 더 정교한 퍼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역 동호인과 클럽 구성원 모두가 진정한 변화를 체감하는 날이 머지않기를 기대한다.

갈등의 끝에서 새로운 출발점이 보이고 있다.

양세력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다. 인천만 해전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  
조선말인 1894년 풍도해전과 1904년 을 지배하게 된다. (다음호 계속)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 대부도저널

창간 2025년 4월 7일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대표전화 (032)880-9994 팩스 : (032)880-9961  
홈페이지 www.daebudojournal.com  
E-mail\_ dj250407@naver.com  
입금계좌 : 신한 131-022-633961(대부도저널주식회사)

대표이사/발행인 윤성용 편집국장 김태창 광고국장 김선중

등록번호 경기 다50794 구독료 월10,000원 | 1부 3,000원(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정탁

행정사사무소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대표 박정탁

안산시청 공무원 출신 행정사

◇ 2004년 안산시청 입사

◇ 2021년 안산시청 퇴직

◇ 대부도 3차례 근무 : 대부도 인허가 담당 (12~13년, 18년~21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Tel.032-880-8533 Fax.032-880-8532

Hp. 010-2378-7128 wjdckr78@hanmail.net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가설건축물  
(체류형쉼터,농막)

개발부담금  
불법사항해소  
(건축물,임야,농지)  
진정서, 탄원서  
농지취득증명  
각종민원해소





대부도 수제포도와인 · 포도즙

# 우리랑

자연으로 빛은 건강한 한 잔

Since 2000  
Wurirang  
우리랑

Since 2000  
Wurirang  
우리랑

추억의 자연상회와 함께 하는 특별한 순간



자연 발효로 빛은 15년의 정성  
안상의 자랑 대부도 수제 포도와인  
우리랑